

민주당 “이번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김태년 “추경 심사 시급”... 12개 상임위장도 단독 선출 시사 통합당, 강제배정 반발 45명 사임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21대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16일 “이번 주 안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당면 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면 보이콧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주도로 간담회 등 일정을 개시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법

안 처리와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위해 더는 국회 의사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19일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에서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6개 상임위 가운데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통합당이 계속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2개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갈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갑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열차가 출발했다”며 “통합당은 민의를 거스르는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으로서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등 당면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옥죄었다.

여야가 통합당 몫으로 가합했던 예결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

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것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각 상임위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합의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당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의정실을 향의 방문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 배정이 이뤄진 통합당 의원 45명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까지는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야당 원내대표 공백 사태

주호영, 설득에도 사의 고수

제1야당이 원내사령탑 공백 상태에 빠졌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야에도 이어진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뜻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날은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등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당에서 준비했던 한일 행사에도 불참했다. 아침 일찍 서울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 후 기자

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공유하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한 모양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를 비롯한 원구성 대책을 논의했다. 당내 분위기는 주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이미 기운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특히 김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 대응 모범국”

문 대통령에 서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모범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2일 보내온 서한을 통해 “광범위한 조기 진단과 접촉자 추적에 기반을 둔 한국의 강력한 공중보건 대응이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구테

흐스 사무총장은 또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사의도 표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이 기후 행동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환경친화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그린뉴딜을 환영한다”고도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기후 행동과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정지·역사왜곡 유튜버 수익 환수”

국회 5·18 관련법 토론회 표현의 자유 상충 문제 등 논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는 과정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를 해결 하고, 유튜버들이 5·18 역사 왜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남대 동아시아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운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법무법인 이우스·전두환회고록 관련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공청회 발제와 토론에선 5·18역사왜곡 처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조항을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됐다.

김정호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과 위헌성 논란을 피하는 측면에서도 완충제로서 독일형법 제130조 제6항과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가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마련했고, “다만, 정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포함)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배제 사유도 추가됐다.

또 이날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5·18역사 왜곡처벌법에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 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공소시효의 정지의 범주

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해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5·18은 북한의 공작’이라는 스티커를 카메라에 붙인 보수 유튜버들이 참석자의 항의를 받고 쫓겨나갔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울지역에 5·18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고 보수 유튜버가 5·18 왜곡으로 수익을 내면 이를 환수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 탄생하나

재선 이해자 의원 도전장... 내일 당내 경선·30일 본회의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개별 이래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오는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이해자(무안·사진)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나선다.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전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금녀(禁女)의 벽으로 여겨졌던 부의장직에 도전한다.

시대 흐름은 일단 여성 부의장 탄생에 우호적인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의원 58명 중 여성이 8명으로 역대 가장 많고, 21대 국회에서 현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에 오르는 등 분위기도 괜찮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전남도의회 안팎에선 이번 의장 선거가 민주당 소속 김한중(삼산·장성2)·김기태(재선·순천1) 의원이 맞붙는 양강 구도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출마가 ‘아름다운 도전’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여성인대다 의장

후보 누구와도 손잡지 않고 홀로 출마를 결행해 당내 경선에서 득표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동료 의원들께서는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뽑아주셨다”며 “의원들께서 시대 흐름과 건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보고 끝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당내 경선을 오는 18일 치른다. 의회 구성이 민주당 53명·민생당 2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이며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다. 경선으로 후보자를 확정된 뒤 이날 3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한다. 의장에는 3명, 1부의장에는 2명, 2부의장에는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조정가</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 29억 5천</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